

피부묘기증의 치료에 있어서, Cetirizine과 Terfenadine의 효과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권오상, 황지환, 서대현, 윤재일, 은희철

Cetirizine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2세대 항히스타민제이다. 본 연구는 Cetirizine의 피부묘기증의 치료에 있어서 약효의 정도와 부작용을 보기 위한 임상시험으로, 이의 비교 대상으로는 2세대 H1 수용체 길항제로서 가장 먼저 개발되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terfenadine을 선택하여 시행하였다.

만 15세 이상의 40명의 피부묘기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20명씩 무작위적으로 7일간 cetirizine 10mg을 저녁에 투여하거나, 7일간 terfenadine 60mg을 하루 2회 투여하였다. Cetirizine과 terfenadine 모두에서 투약 전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으로 팽진의 폭이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Cetirizine과 terfenadine을 각각 투여한 후 팽진의 감소율을 비교하였을 때, 평균적인 팽진의 감소율이 cetirizine의 경우 71%~75.7%이었으며, terfenadine의 경우 29.5%~39.2%로 cetirizine을 투여한 군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측정된 3곳 모두에서 terfenadine 투여군에 비해 팽진의 폭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 및 환자의 주관적인 효과판정의 결과 cetirizine이 terfenadine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부작용의 정도는 중추신경계의 부작용으로 cetirizine의 경우 졸림의 항목만 2명에서 관찰되었으나 terfenadine의 경우 두통이 3명, 졸림 5명, 소화기계 증상으로 복통 2명, 메스꺼움 2명, 구토 1명으로 보고되었으며, 기타 부작용으로 가슴의 답답함을 2명에서 호소하였으며, 흉통을 1명에서 호소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부묘기증의 치료에 있어서 cetirizine 10mg 하루 1회의 경구요법은 거의 부작용이 없이 우수한 치료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